

9/8/19

설교 제목: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2 장 1-12 절

- (막 12:1)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좁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 (막 12:2)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 (막 12:3)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 (막 12:4)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 (막 12:5)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절관주** 느 9:26, 살전 2:15
- (막 12:6)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 (막 12:7)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절관주** 시 2:2, 히 1:2
- (막 12:8)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 (막 12:9)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 (막 12:10)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 (막 12:11)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 (막 12:12)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절관주** 마 21:46, 요 7:30

본문은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고 따집니다.

(막 11: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며

(막 11: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막 11: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막 11: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막 11:27)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막 11:28)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막 12:1)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좁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나무를 심었다고 당장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도를 수확하려면 적어도 4,5 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주인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새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도 두르고 좁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는 등 투자를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막 12:2)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막 12:3)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막 12:4)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막 12:5)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런데 소작농인 농부들이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하게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 보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종의 머리에 상처를 냈고 능욕했습니다.

주인은 계속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농부들은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소작농인 농부들이 주인에게 세로 일정분의 소출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세로 일정분의 소출을 요구하는 것을 주인이 자기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에게 바쳐야 할 소출을 바치지 않고 자신들이 모두 다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일반 주인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농부들을 당장 쫓아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주인은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하고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막 12:6)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나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막 12:7)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막 12:8)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속법은 상속인이 없는 땅은 누구든지 먼저 차지한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자주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만 그 주인에 의해 포도원이 헐리기까지는 이스라엘이 교회의 상징으로 포도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회개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고 또 죽인 것을 경고하셨으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일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며 그 대신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 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실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 곧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막 12:10)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포도원으로 가꾸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셨습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하여 수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추수 때에 그 소출을 거두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영적 열매를 거두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치는 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으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마지막 방안을 세우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막 12:9 상)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12:9)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귀절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대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농부들의 배신에 이 포도원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농부들을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진멸은 곧 이스라엘의 최후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는 말씀은 포도원의 주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특권은 사라지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포도원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AD 70 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멸과 함께 멸망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없이 온 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 년에 이르러서 기적적으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도원의 재건으로 보면 안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특별한 배려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막 12:10)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막 12:11)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 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 118:21)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 118:22)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 118:23)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Passover)을 지키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118 편을 유월절마다 노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절은 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시간 우리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의 태에서 나온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의 태에서 나온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의 죽음은 실패인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의 죽음은 복음을 위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별거벗기운 채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요?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리켜 실패했다고 무능하고 바보같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그를 결코 그냥 두지 않고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죽기까지 사명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며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쩌면 죽음의 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 무능하고 바보같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받은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